

2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예레미야 · 디모데전서 · 디모데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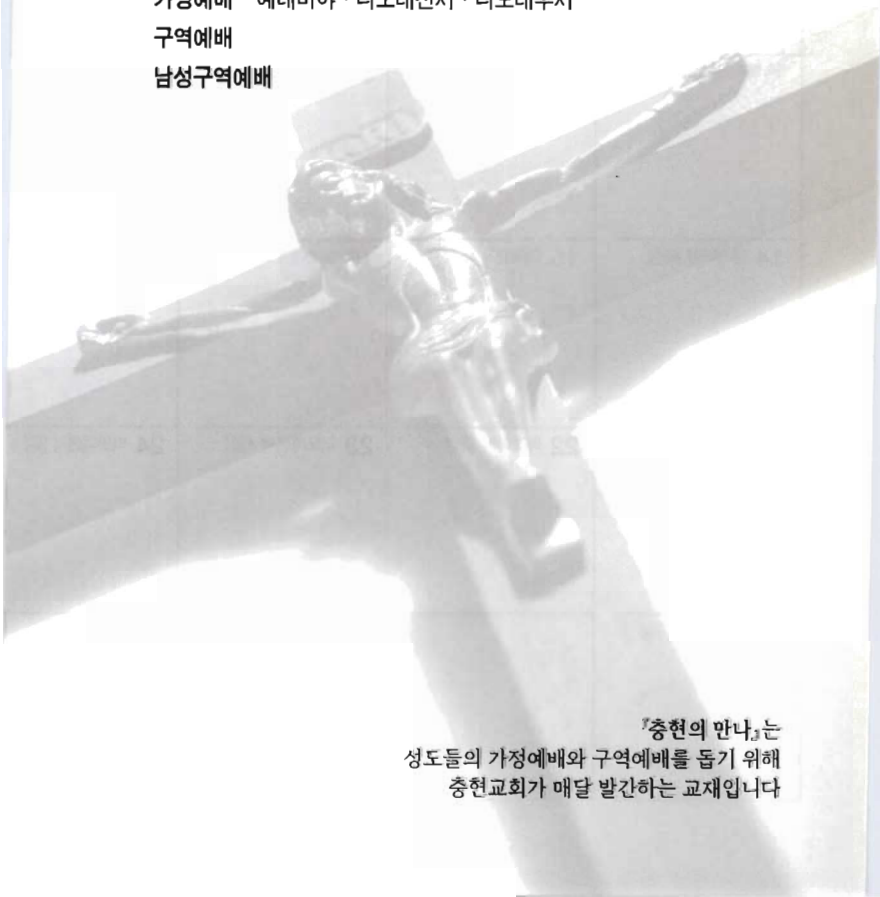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예레미야 · 디모데전서 · 디모데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2

2010
February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예레미야 31장	2 예레미야 32장	3 예레미야 33장
7 예레미야 37장	8 예레미야 38장	9 예레미야 39장	10 예레미야 40장
14 예레미야 44장	15 예레미야 45장	16 예레미야 46장	17 예레미야 47장
21 예레미야 51장	22 예레미야 52장	23 디모데전서 4장	24 디모데전서 5장
28 디모데후서 3장			

March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 예레미야 34장

5 예레미야 35장

6 예레미야 36장

· 교회 주요일정

17일 재의 수요일
(사순절 2/17~4/3)
26일 제1차 청지기훈련
28일 제1차 학습세례식

11 예레미야 41장

12 예레미야 42장

13 예레미야 43장

· 나의 주요일정

18 예레미야 48장

19 예레미야 49장

20 예레미야 50장

25 디모데전서 6장

26 디모데후서 1장

27 디모데후서 2장

- ① 사순절기(2.17~4.3)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③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④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⑤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⑥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남골시설, 함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⑩ 2010년 제1차 청지기훈련(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사 53:12)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조건과 환경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우리 모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자신의 조국,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를 멸시했고 미워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거나 우리의 뜻을 내세우는 데 있습니다.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간구하십시오.
박해받음이 응답입니다. 고난당함이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십시오.

2010년 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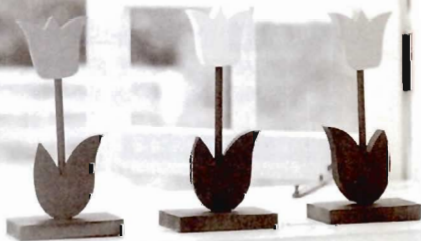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성경묵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 찬송가 436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전의 언약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언약의 형태를 소개함으로써,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치 않는 이상적이고도 온전한 공동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준수에 있어 너무나도 철저했던 구약의 백성은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의 본성은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롬 7:7~9).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외적인 강제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화를 받아 자원하는 심령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요 14:17, 26; 행 7:55).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간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 더 이상 죄악의 세력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새 언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하며, 또한 그분의 구속 경륜에 대한 찬양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렘 31:31)

-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 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예레미야 32장 · 찬송가 393장

2 화요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 시위대의 뜰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이 얼마 안 있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삽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시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라고 명하셨을 때, 그의 마음에는 다소간의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언뜻 보기에 예언의 일관성이 결여된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록 죄 때문에 당장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본래의 토지 주인이 그 소유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의 죄값으로 인해 징계를 당할 수 있으나, 언제나 회개할 때에는 다시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에게는 늘 십자가의 은총과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여라도 담대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렘 32:38)

기도제목 ①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시위대의 뜰에 갇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성실하게 전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입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10~13절). 그리고 장차 유다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여 그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며 새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14~16절의 다윗 왕권의 영원한 회복과 18~26절의 영원히 계속될 제사장직의 회복이 약속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이며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멸망시키실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직, 제사장직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한 기쁨과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어진 새 언약은 영원불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렘 33:14)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의 포로 됨과 죽음을 선포하면서 언약을 저버린 방백들과 백성에게 주어 질 처참한 운명을 예언합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떠나자 노예들을 다시 끌고 오는 사악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간사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에서 진행된 거짓 회개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의식 중에는 송아지를 잡아 돌로 갈라놓은 다음에 그 사이로 걸어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어길 경우 송아지와 같이 죽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만홀히 여기는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항상 정도(正道)만 있을 뿐이지 결코 변칙이나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언약의 참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징계를 받게 됨을 명심하면서, 늘 언약을 기억하며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렘 34:20)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레갑 족속을 실례로 들어 유다 백성의 패역과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보여 줍니다. 겐 족속이라고도 불리는 이 족속은 당시 유다 평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술을 금하고 장막생활을 하였는데,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복을 주시면서 대조적으로 율법을 거절하는 유다 백성의 배도적 행위를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유다만이 언약의 백성이며,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자부하던 유다가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었는가를 보여 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유다 백성과 같이 우리의 신분과 업적만을 의지하며 실제적인 순종과 믿음이 결여된 모습은 없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소용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다 백성과 같은 교만과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취보면서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은 나의 명예와 업적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니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렘 35:16)

기도제목 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과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4년에 자신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시기로부터 당시까지 자신이 선포했던 예언을 서기관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에 모두 기록하고 낭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통해 심판이 선포되자 유다 왕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는 두루마리를 태워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로운 두루마리를 기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여호야김 왕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인간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스테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둘째, 피상적인 경외심만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면서 나중에 권력을 얻을 때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개와 순종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 앉드렸던 다윗 왕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자 말씀에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아 왕도 이러한 예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적극적인 회개와 순종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물려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렘 36:4)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딤후 2:2)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레미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왕의 첫 대면을 언급한 전반부(1~10절)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투옥과 시드기야 왕과의 두 번째 대면을 진술하고 있는 후반부(11~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지만,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함을 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함락을 왕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고관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의 도움으로 풀려나지만, 그는 시위대의 뜰에 머물면서 역시 동일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며,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난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욕으로 삼았음이라”(렘 37:15)

기도 제목 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는 세력과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하려는 자들 사이의 갈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구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방백들을 두려워하여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6절). 그러나 곧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의 탄원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출되고(7~13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두려워함과 불신앙으로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거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의 뜰에 머무르게 됩니다(14~28절).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이 원하고 듣기 좋은 것만을 듣고자 하는 자와 진리를 선포함으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위협이 있다 해도 그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벧전 2:19).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네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렘 38:21)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9장 · 찬송가 135장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고, 시드기야 왕과 그의 일가족은 예언대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대부분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는 수난을 당하게 되고 가난한 천민만 남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1~10절)와 예레미야의 석방 및 에벳멜렉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후반부(11~1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시드기야 왕은 자신을 진정한 유다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반(反) 바벨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애굽, 암몬, 모압 등과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반박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것을 주장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벳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17~18절).

하나님께서서는 그 예언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아직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속하신 심판의 시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였음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구주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더라”(렘 39:18)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교회가 추진중인 여러 시설 건립 및 함양 훈련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전반부(1~6절)는 석방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의 정책을 언급한 중반부(7~12절)와 이스마엘의 그다랴에 대한 음모를 묘사한 후반부(13~1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사라단에 의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라마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 후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되어 친 바벨론 정책과 경제 부흥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의 종친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암몬 왕의 사주와 인간적 능력으로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3절). 이는 바벨론 근위대장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행하심을 알며 인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불신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나 말씀하심을 듣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렘 40:6)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당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우는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레미야 41장 · 찬송가 288장

그다라의 암살 사건과 이스마엘의 만행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1~10절)와 요하난의 의지가 기록되어 있는 후반부(11~1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라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보낸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게 되고,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을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대로 언약 파기의 대가로 패망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언약을 진지하게 숙고하거나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하여 인간적인 힘으로 유다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유다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 의해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릴 위기에까지 놓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백성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상황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유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유리하는 양과 같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양을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리저리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흔들리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계룻김함에 머물렀으니”(렘 41:17)

기도제목 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정의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요하난이 유다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려 하자,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요하난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 순종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하난에게 애굽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요하난과 그 일행들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중보기도의 요청(1~6절)과 하나님의 응답(7~22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칼과 기근과 염병에 의한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묵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며, 백성에게 살 길과 죽을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살리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12절). 결국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어떠한 이름도 주시지 않았습니(행 4:1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렘 42:12)

기도제목 ①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게 하소서. ② 예배와 집회를 수종으로 모든 십자가에게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의 모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결국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1~7절). 더구나 애굽까지의 무사한 행로는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될 것을 예언하며,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재앙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8~13절).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라는 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구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죄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렘 43:7)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애굽의 다바네스에 도착한 요하난과 유다 백성은 생활이 안정되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으며, 점차 애굽인들에게 동화되어 이방의 생활 방식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을 상기시키면서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1~14절).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가 풍요와 행복을 더욱 가져온다고 역설합니다(15~19절).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난날 유다 땅의 유다 백성이 범한 죄악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의 남은 자들에 관해 최종 경고를 합니다(20~30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 경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건강 혹은 세상에서의 부귀와 성공이 모두 우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땅의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3:2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천국만 소망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니”(렘 44:4)

기도제목 ① 본래 하던 죄된 삶을 버리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학생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확신있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45장 · 찬송가 70장

바룩에 대한 메시지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이자 제자요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열심을 다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습니다. 이런 그가 예언을 기록하면서 갈수록 조국의 미래가 참담하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절망은 민족의 아픔을 나누는 절망이 아니라 개인의 대사를 경영하는 일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개인적인 일을 단념시키시고 그것과는 다른 내용의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에 마음을 갖도록 권면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5절).

우리는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붙드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혹시 개인의 큰 계획에 마음이 빼앗겨 바룩처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소망과 이 땅의 썩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모두 버리고,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렘 45:4)

기도제목 ① 나의 모든 관심과 일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길 수 있는 시선을 주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 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애굽의 파멸에 대한 예언으로, 이 예언은 애굽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많은 유다인이 애굽의 도움을 신뢰하던 때에 선포되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애굽과 바벨론을 뱀과 벌목꾼으로 비교합니다. 무성한 숲에 거하던 뱀 애굽은 마치 벌목꾼과 같은 바벨론이 숲을 걷어내자 거처를 잃고 미끄러지게 됩니다(22절). 또한 본문에서는 애굽의 심판에 이어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다른 민족들에게도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46~51장).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에 대한 징계와 함께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27~28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행 5:31).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출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렘 46:28)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백성됨의 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블레셋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 47장 · 찬송가 358장

블레셋의 파멸에 대한 예언으로,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음이라”(암 1:6).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멸망은 모든 것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앗아가 버린 갑작스런 홍수에 비유됩니다(2절). 예언대로 블레셋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한 후 역사에서 그 이름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조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끈질기게 괴롭혀 왔던 블레셋은 결국 이렇게 파멸되고 맙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블레셋 민족과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어려움을 야기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원망과 미움으로 갚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마 5:44).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어 악행을 서슴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오히려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렘 47:3)

기도제목 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계명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순종하게 하소서. ② 오늘(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모압은 비옥한 땅과 좋은 기후로 인해 농산물이 풍부했으며, 남북 간의 주요 무역로에 위치한 덕분에 중계 무역이 성행하였습니다. 더욱이 모압은 발 빠른 외교 전략과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외국의 침입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교만해졌으며, 그들의 풍요와 안정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모스 우상의 보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압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그들의 거만과 교만이었습니다(사 16:6).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압을 징벌하여 공의를 만전하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뒷받침하는 풍요와 안정을 철저히 진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교만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인 그들의 우상을 멸망시켜서 우상 숭배의 헛됨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모압을 멸망하게 하신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이십니다(38절). 모압은 독수리 같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압의 멸망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을 피하여 도주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따라가 철저히 진멸하실 것입니다(40~46절). 우리는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기 전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다”(렘 48:16)

기도제목 ① 나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암몬(1~6절), 에돔(7~22절), 다메섹(23~27절), 게달과 하술(28~33절), 그리고 엘람(34~39절) 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중 에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또한 에돔들은 지혜롭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 지혜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14~15절). 에돔은 지형상 천연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멸망을 통해 땅 위에 구축한 요새를 신뢰하는 에돔의 교만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 대신 군사력이나 정치력만을 의지해 오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에돔은 주변 국가들이 반 바벨론 정책을 펼 때에도 바벨론의 편에 가담하여 정치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580년에 바벨론에게 멸망 당했으며, 그 후 남은 자들마저 아랍의 침입으로 본토를 잃고 유다의 남부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체의 허무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고전 1:21).

“그러나 내가 예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으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렘 49:10)

기도제목 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변하게 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예레미야 50장 · 찬송가 569장

20 토요일

지금까지는 바벨론을 통한 여러 나라의 멸망이 선포되었지만, 이제는 바벨론 자체가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50장과 51장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거듭 반복한 것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31절). 바벨론은 그들이 유다에게 행했던 악행과 똑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멸망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높은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남용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이상의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압제하는 자는 결국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예언대로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정복당한 뒤에 역사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17~20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 때문에 얼마 동안 엄하게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삶의 매순간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렘 50:34)

기도제목 ①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연합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보다 구체적으로 선포됩니다. 즉 앞장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단지 '북쪽에서 오는 한 나라'로 언급되었지만(렘 50:3), 여기서는 '메대-바사의 연합국'임을 28절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28절).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과 같은 막강한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64절). 그러나 천지만물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15~26절).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육체에 비유하셨습니다(34~35절). 그가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 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서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여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장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달려있었습니다. 또한 개개인을 일으키시기도 하시며 주저앉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온 인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렘 51:64)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와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유다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 붙잡혀 아들들은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낫사슬로 결박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왕궁과 성전과 성벽 및 성 안의 모든 건축물을 헐어버렸으며,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갔습니다. 24~30절에는 3차에 걸쳐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의 수효와 바벨론에 의해 처형당한 유다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바벨론으로 잡혀 갔던 여호야킨은 느부갓네살의 대를 이은 에윌므로닥 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후한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암담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신자들 역시 주님께서 붙드시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뜻하지 않은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 커다란 실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빌 4:6~7).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렘 52:34)

기도제목 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2010년 제1차 청지기훈련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여 보혈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디모데전서 4장 · 찬송가 420장

다가올 배교에 대해 경고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경고를 교회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감당해야 할 일들 중의 하나로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7~8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위해서는 망령된 일을 버려야 합니다. 망령된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거짓 교훈들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 교훈들은 우리에게 세상과 초등학교문⁹ 좇게 하며(골 2:8), 허망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엡 4:17). 결국 거짓된 교훈들은 우리를 망령된 생활로 인도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런 망령된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 연습은 외식적인 연습이 아닙니다. 또한 경건은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일어납니다. 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 약속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악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8)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랑을 깨달아 십자가의 은총을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채움 받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 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목사님을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장로에 대하여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말씀하면서 인간의 죄악이 밝히 드러날 것과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24~25절).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 전에 드러나고, 또 어떤 사람의 죄는 재판중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숨겨진 죄악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악이 선으로 가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면은 반드시 벗겨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드러나기 마련인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뒤따르게 됩니다(마 12:36 : 전 12:14). 어떤 죄를 막론하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드러나는 죄든, 가리워졌다가 뒤에 알려지는 죄든, 영원히 은폐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된 자리에 서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롬 2:16). 이 날에 우리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 우리의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우게 되길 바랍니다(고후 5:4). 매일 계속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악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딤후 5:24)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일꾼들의 섬김에 믿음의 흔적만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돈을 사랑하는 자

디모데전서 6장 · 찬송가 436장

부를 추구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열거합니다. 이는 부한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9절). 부하려하는 자들이란 인류 공존의 법칙을 무시하며 이웃에 대한 착취와 불의를 그들의 삶의 근간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물질에 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곧 돈이 되어 신앙을 잃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재물 축적의 수단과 기회로 삼아 물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약 5:16). 험로운 정욕에 빠져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부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아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마 16:24). 우리 인생의 안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불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겠도다”(딤후 6:10)

기도제목 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 시 적절한 날씨를 주시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어 부르신 은혜를 강조하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까지 바치는 태도로 임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주님의 구속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받고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그 모든 일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며,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8)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심령에 깊이 각인하며, 그 말씀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의 좋은 병사

디모데후서 2장 · 찬송가 349장

병사는 언제나 자신의 사생활보다는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함같이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의 뜻을 이루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헌신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게 설 것과 자신이 가르쳐 준 교훈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명했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 교훈을 좇아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하여 엄히 경계해야 하며, 아울러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온유함으로 징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만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규칙대로 경기하여야만 승리자가 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법대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여 승리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 행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2:3)

기도제목 ①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보혈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 예고하면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교훈했습니다. 바울은 구원과 거룩한 삶의 표준으로서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서, 그 말씀을 배웠으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저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말세에는 심지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까지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행위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로부터 돌아설 것을 디모데에게 명하였습니다. 많은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킴으로써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오직 십자가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핍박을 피하려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두움의 세력에 의하여 죽기까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를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인내로 승리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따라서 핍박을 당할 때에 말씀과 기도와 믿음, 그리고 인내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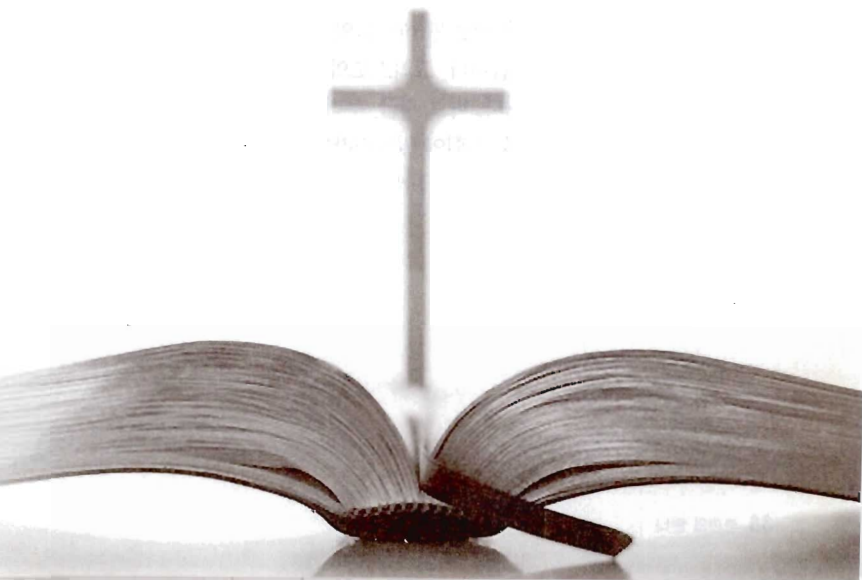
기도제목 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2010년 제1차 학습 · 세례식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역예배

2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
나의 유일한 소망



십자가,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은 신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겠지만 영원한 세계까지는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우리는 어둠뿐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의 길에 서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붉은 색을 띤 하나님의 초대장에 쓰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금요모임	본문	제목	초침
0205	예레미야 33:1~3	하나님의 초대	십자가를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자
0212	사도행전 1:4~6	지금은 어느 때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자
0219	누가복음 4:1~2	시 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과 맞서자
0226	사도행전 6:1~7	교회를 세우라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구역예배 진행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 입

믿음의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 개

말씀의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자가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하나님의 초대

| 초점 |

십자가를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자

| 찬송 |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본문 | 예레미야 33:1~3

¹“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와 말
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²“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
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³“너는 내게 부르짖으
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람마다 조건과 환경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려도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레미야 역시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렘 33:1~2

우리의 심령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면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심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불러들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기도는 주님을 초대할 수 있는 특권이다

기도는 초대의 특권입니다.

렘 33:3 / _____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아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초대로부터 시작됩니다.

마 7:7~8 _____

※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약 4:2~3).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히 4:15~16 _____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에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렘 33:3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_____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마치 종교적인 치료법처럼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쩌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가끔은 받지 못하는로도 추천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응답하십니다.

※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아브라함(창 21:2)	
엘리아(왕상 18:37~38)	
예수님(요 11:43~44)	
베드로(행 9:34~35)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대해 당신의 방법과 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렘 33:3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_____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분의 응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엡 3:20 /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 능히 하실 이에게

마 17:20 _____

하나님은 각자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전 12:8~11 _____

십자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막 9:23 _____

빌 4:6 _____

가족과 친구,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과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교회 문을 나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나의 욕심을 모두 버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2. 항상 복음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기도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 초점 |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자

| 찬송 |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본문 | 사도행전 14~6

⁶⁴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⁶⁵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⁶⁶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곧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행 1:6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조용히 주님께 물었습니다.

※ 제자들의 질문(마 24:3)처럼 종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자유롭게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숫자 666과 적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계 13:18). 이 주제를 다룬 많은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의 저자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궁금해 하거나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행 1:4~5 _____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시 27:14 _____

시 37:7 _____

사 40:31 / 오직 여호와를 ☐☐하는 자는 ☐☐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 3:25~26 /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 선택되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_____ 잠잠히 _____ 좋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행 1:8

우리에게는 복음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 교회는 심한 박해로 인해 사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행 2:18~21 /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시는 능력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복음전파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 본 뒤,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딤후 4: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자

지금은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행 1:14 /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_____
_____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1세기의 교회는 심각한 분열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각자 선호하는 장로가 다르고, 지지하는 교역자가 다른 이런 식의 어리석은 다툼들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었습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지만, 성령께서 오신 후 그들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서로를 사랑했으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행 4:32~35 _____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전혀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회개와 자기 부인, 십자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일 4:1 _____

딤후 2:15 _____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적인 일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이 세대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의 가정에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 다음 주 구역모임 시, 사순절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시 험

| 초점 |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과 맞서자

| 찬송 |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본문 | 누가복음 4:1~2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삶, 그것에 대한 소망을 축하하는 부활절을 기도로 준비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 사순절에 대해서 각각 준비해 온 것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주력교구표를 참조(주간총현)하여 내가 참석해야 할 일자를 체크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히 3:1 _____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대단히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행되듯이 사순절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2월 17일)부터 부활절(4월 4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입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부릅니다.

욥 42:6 /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 가운데에서 ☐
하나이다

마 4:2 _____

40이라는 숫자의 성경적 의미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시작부터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탄의 시험 앞에 연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셨습니다.

눅 4:1 / 예수께서 □□의 □□ 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당신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끝나자마자 곧 주님은 광야로 이끌리셨고 그곳에서 마귀와의 길고도 긴장된 대면의 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유익은 무엇인가요?

시험을 당할 때 언제나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마귀는 고난이 없는 영광의 길로 유혹합니다. 즉 개인의 영광과 권력이라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우리가 더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단번에 완전히 이겨내야 했습니다. 주님에게는 완벽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를 견디기 위해 주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벧전 1:6

시험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써 보십시오.

- 눅 4:4 _____
- 눅 4:8 _____
- 눅 4:12 _____

사탄에 대한 승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주님은 사람과의 접촉이나 먹을 것 없이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고전 7:5 _____

광야에서 예수님의 승리는 앞으로 주님에게 닥칠 힘겨운 시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 히브리서 4:15~16, 5:7~8와 고린도전서 10:13 말씀을 읽고 묵상한 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 사람과 환경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40일간의 금식기도 후에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말씀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히 2:18 _____

약 1:12 _____

히 12:1~2 _____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사탄과 맞서길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매순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2. 사탄의 모든 시험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가득하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라

| 초점 |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 찬송 |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본문 | 사도행전 6:1~7

^㉞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㉟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 ^㊱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㊲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 교회가 시작된 후 사도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냈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갔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마 16:18~19 _____

마 28:18~20 _____

사도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행 6:1).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항상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사도행전 6장에서 언급된 초대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초대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의 터 위에 좀 더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 6:2 /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_____
_____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 교회에 나오면서 내부적인 불평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탁월한 목회자들, 장로들, 집사들과 교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교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어떤 교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도, 그들의 지도자를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 그대로 머물면서 경청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행 6:3~4 _____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그점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조직하셨다

성령님은 교회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셨습니다.

행 6:5~6 /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과 □□이 □□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하고 그들에게 □□하니라

기도하며 잠잠히 들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누구를 택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초대 교회는 교회 내의 문제를 담당해 줄 일꾼 집사를 택했습니다. 이들은 정직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골 1:25 _____

초대 교회의 일꾼 집사들은 교회의 사무를 도맡으며 성도를 섬기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자유롭게 기도와 사역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초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책임을 분배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무를 맡길 적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 9:38 _____

성령님의 조직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다

성령님의 조직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행 6:7 /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하니라

초대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순종은 더 활발한 사역과 함께 복음전파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쓸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수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고전 2:10 _____

엡 6:17~18 / 구원의 투구와 의 겹 곤 하나님의 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에는 항상 성도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귀의 활동으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의 한계를 이해해 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과 미처 관심갖지 못하는 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가 강건해지고 서로 도울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기도로 통해 협력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엡 5:2 _____

고전 10:32~33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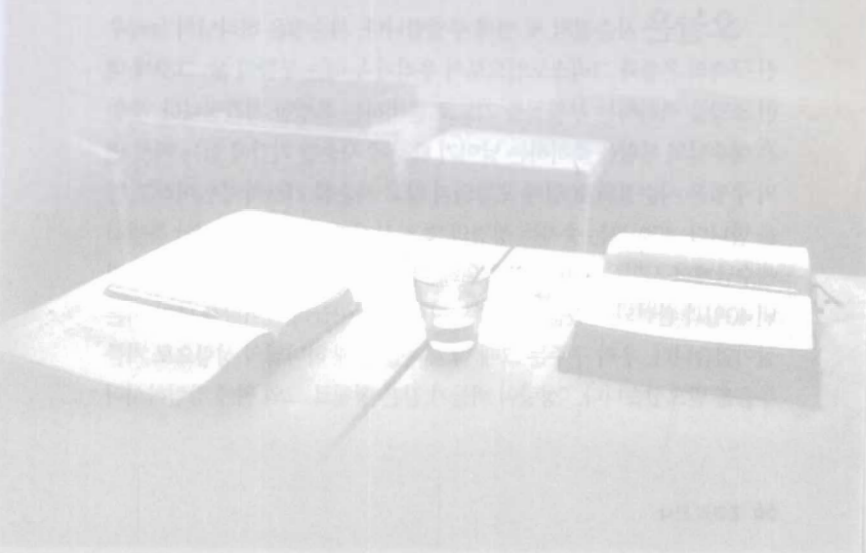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때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원합니다.

| 믿음의 기도 |

1.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2. 모든 중직자와 성도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시 험

⁽¹⁾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²⁾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누가복음 4:1~2)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삶, 그것에 대한 소망을 축하하는 부활절을 기도로 준비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사순절의 40일에 포함되지 않고 사순절 기간의 주일이라고 말할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많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마귀의 시험을 당하며 광야에서 지낸 40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광야에 이끌려 들어갔을 때가 서른 살이었습니다. 우리 구주는 그때 막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쁨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

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 하노라 하시니라”(눅 3:22).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을 준비 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시작될 3년간의 사역은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시작부터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녔다고 해서 주님의 인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탄의 시험 앞에 연약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이 시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시험들을 이기고 자신을 지키신 주님의 40일 간의 사탄과의 전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좁은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을 위험천만한 곳으로 이끄셨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시험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의 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당신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끝나자마자 곧 주님은 광야로 이 끌리셨고 그곳에서 마귀와의 길고도 긴장된 대면의 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신뢰하는 아버지가 마귀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믿음으로 자신을 강인하게 단

련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느꼈을 때 주님은 변함없는 은총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감당할 사역은 이 세상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언제나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마귀는 개인의 영광과 권력이라는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더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단번에 완전히 이겨내야 했습니다. 주님에게는 완벽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를 건지기 위해 주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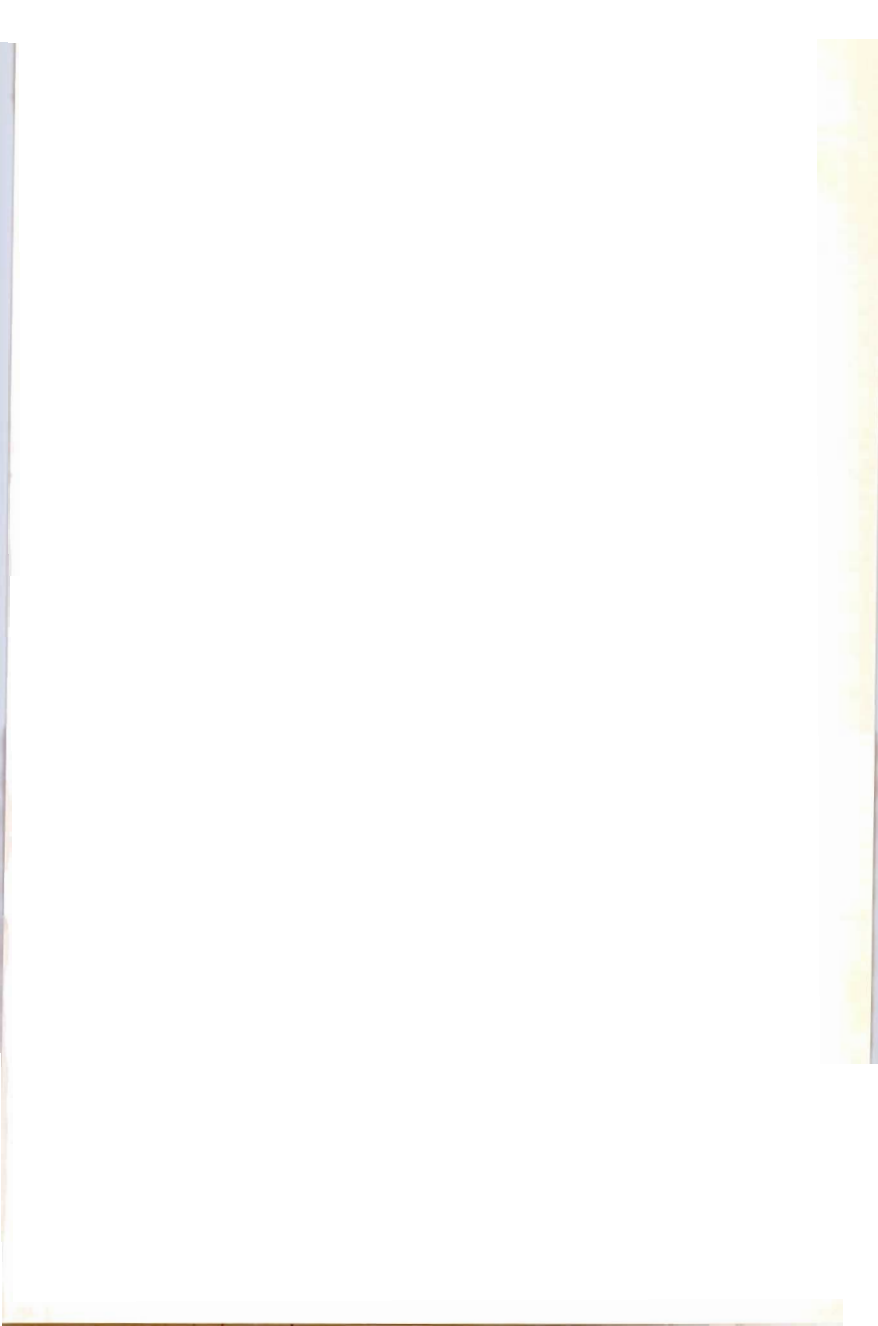
시험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대적했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적을 저지하셨습니다. 주님은 시험에서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과 권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주님은 사람과의 접촉이나 먹을 것 없이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

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 이라”(고전 7:5).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게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 5:7~8).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승리는 앞으로 주님에게 닥칠 험준한 시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시험들을 견디셨고 성공적으로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통과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16).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험의 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그럴싸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한층 더 매혹적이어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고, 죄악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우리를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온갖 유혹이 밀려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위해

미리 준비된 사람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인지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속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시하며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주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위대한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시험의 때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가 울며 매달릴 수 있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1~2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0년 2월

Copyright© 2010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